

2020. 1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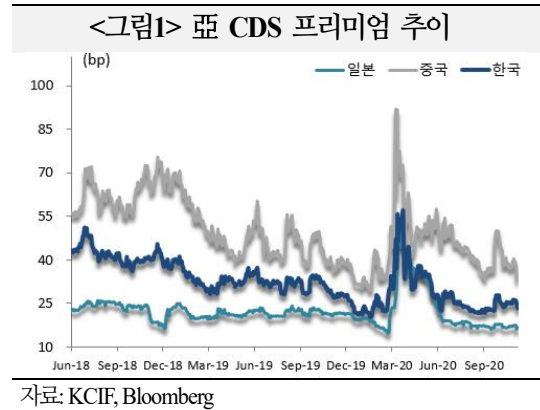
## 美 선거결과 반영, 고용시장 회복 등으로 가산금리 하락

장원영 | 책임연구원(3705-6155)

- [유통시장] 美선거의 개표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이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 고용시장 관련 지표(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비농업부문 고용, 실업률 등) 역시 시장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亞 크레딧물 가산금리 하락, CDS도 하락

- 亞 크레딧물 가산금리 : IG, HY 하락 (Bloomberg Barclays Asia USD IG -5.2bp, HY -40.9bp)

- 한국물 가산금리는 보합세(-4bp~+1bp)
- 美 대선은 개표 관련 소송이 승자 확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불확실성 감소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후퇴
- 亞 크레딧물 역시 지난 2주간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선거 불확실성 완화와 대선 이후 2021년에 성장전망·경기회복 기대감 등을 반영하면서 Search for Yield 심리가 되살아나 가산금리가 하락(GS)



- 亞 CDS 하락 : 일본 -0.6bp, 중국 -7.2bp, 한국 -2.8bp, 말레이시아 -6.7bp, 태국 -7.0bp, 베트남 -14.9bp, 인도 -16.0bp, 필리핀 -6.6bp

- [발행시장] 11월 첫째주 亞 달러채(ex-Japan) 시장은 전주대비 감소한 약 \$9억 발행 (10월 다섯째주 \$68억 발행)

- 11월 첫째주는 美대선 결과 대기모드로 지난주 대비 발행량 더욱 감소한 9억불(중국물) 발행. 美대선 불확실성 감소로 중국 IG발행사들을 중심으로 차주 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 다만 상당수 발행사들이 미국 대선 이전에 미리 발행을 끝마침에 따라 아시아 발행시장은 연말까지 발행물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JP Morgan)

<표 1> 주요 亞 외화 공모채권 발행 현황

| 발행기관                   | 종류   | 신용등급  | 발행일      | 만기年      | 통화  | 발행액억 | 발행금리 | 주문억 | 비고 |
|------------------------|------|-------|----------|----------|-----|------|------|-----|----|
| Jinshine International | RegS | -/-/- | 20/11/05 | 23/11/12 | USD | 4    | 4.5% | -   | -  |

<표 2> 한국계 가산금리

|           | 발행액 | 만기                 | '19년말 | 10/30일 | 11/6일 |
|-----------|-----|--------------------|-------|--------|-------|
| 외평채'29    | 10  | 6/19/2029          | 47    | 45     | 46    |
| 산업은행'24   | 5   | 10/1/2024          | 51    | 50     | 48    |
| 국민은행AT1   | 5   | 7/2/2024(1st call) | 206   | 261    | 262   |
| 한국서부발전'22 | 3   | 7/22/2022          | 59    | 51     | 50    |
| 한국전력공사'24 | 5   | 6/24/2024          | 68    | 61     | 57    |

<표 3> 亞 주요국 CDS

|    | '19년말 | 10/30일 | 11/6일 |
|----|-------|--------|-------|
| 한국 | 22    | 26     | 23    |
| 일본 | 20    | 17     | 17    |
| 중국 | 31    | 40     | 33    |
| 태국 | 23    | 50     | 43    |
| 인도 | 62    | 99     | 84    |

자료: KCIF 등. 단위: 각 통화 억, bp

- [미국 IG 발행시장] 11월 첫째주 IG발행시장은 지난주 대비 감소한 총 \$25억 발행(전주 \$140억)

- 11월 첫째주는 美대선 결과 불확실성으로 총1건, 25억불 발행. 대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Waste Management(Baa1/A-)가 4개 트랜치로 발행에 나섰으며 전 만기에 걸쳐 0이하의 NIP 달성
- 미국 IG시장도 마찬가지로 美대선 시즌의 적은 공급물량에 따른 양호한 수급여건을 활용하려는 기업들로 인해 발행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JP Morgan)